



검찰이 론스타 코리아 유회원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 준항고를 신청한 22일 오전 이용훈 대법원장(왼쪽)과 정상명 검찰총장이 각각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론스타, 외환銀 재매각 파기설 사실일까

‘검찰 압박용’ 가능성 높아

론스타가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재매각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는 외신의 추측 보도가 22일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말 그대로 풀어보면 7조원에 달하는 초유의 국제적인 계약이 파기될 위험에 놓인 것이다.

그러나 금융가는 론스타의 이같은 ‘벼랑끝 전술’을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수단인 동시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제로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이 며칠 내에 파기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존 그레이겐 론스타 회장은 FT에 “내부적으로 국민은행과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계약을 파기하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의 협박성 코멘트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발언은 그 수위가 한계점에 근접할 만큼 높아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8월 파이낸셜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우리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은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거나 “외환은행 인수 관련 검찰조사가 적절할 시점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매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민은행과 재매각 논의가 보류 중”이며 “검찰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국내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레이겐 회장 발언의 첫번째 의도는 검찰과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수사 발표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점이 이같은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론스타가 실제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사전 정지작업에 돌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이 2003년 외환은행 재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에 대비해 미리 경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 ■ 현장과 시각 ■ ■

光銀 매각 바라보기



장필수

경제부 차장

광주은행의 분리매각 문제가 지역 경제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주전 지역 상공인들의 광주은행 분리매각 요구로 시작된 이 문제가 최근에는 광주은행 인수추진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쟁점화되고 있다.

지역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추진위는 21일 회의를 갖고 ▲정부를 상대로 광주은행 분리매각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광주은행 주식 인수행사를 접수하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순회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방안을 내놓았다. 지역내 역량을 결집해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의 요구는 현재 우리금융지주그룹에 자회사로 속해있는 광주은행을 우리금융지주와 분리해서 매각하라는 것이다. 38년전 지역민의 자본금 1억5천만원으로 탄생한 지방은행인만큼 경영권을 지역에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

지역 상공인들의 요구는 정부가 2008년 3월안에 광주은행을 포함한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4천416억원의 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2001년 3월 우리금융지주에 편입된 광주은행은 그동안 놀랄만한 실적을 기록하며 우량은행으로 거듭나고 있다. 부실을 털고 자산 14조5천억원에 세전이익만 1천345억원에 기록할 정도로 성장한 만큼 매력적인 인수대상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민영화의 열쇠를 쥐고있는 정부는 지역 상공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민영화는 하겠지만 분리매각 자체에도 부정적인데다 분리매각을 하더라도 지방은행이라는 이유로 광주은행 경영권을 지역기업에 돌려주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광주은행측도 정부와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아래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분리매각될 경우 독자생존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논리다. 여기에 광주은행 부실의 단초가 됐던 최대주주인 지역기업의 불투명한 경영이 악몽으로 되살아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설문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인 여론은 ‘별 관심이 없다’다. 경영권을 누가 갖든지 대출금의 60%이상을 지역내에 공급하는 등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만 충실하면 된다는 것이다. 2003년 주식 상장폐지로 큰 피해를 봤던 지역민들의 입장에선 경영권문제보다 지역자금의 역내순환에 전념하는 진정한 지방은행으로 거듭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광주은행 인수를 추진하는 지역 상공인들은 지역민들의 이런 생각을 가슴속에 품고 ‘지방은행은 지역민의 손에’라는 요구에 앞서 광주은행을 왜 지방에 환원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논리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bungy@kwangju.co.kr

검찰, 유회원씨 기소 유보

준항고 기각...재항고 법원 결정 나올때 까지 지켜보기로

정문수 前청와대 경제보좌관 소환

론스타의 외환은행 할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 기각에 따른 대법원 재항고 결정이 나온 이후에 유 대표를 기소할 방침이다.

재동육 대검 수사기획관은 22일 오후 브리핑에서 “최종심 결과가 나와야 신빙처리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유 대표 기소를 재항고와 관련한 대법원 결정이 나온 뒤로 유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 대표의 기소는 검찰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다음달 또는 내년 1월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4차례에 걸친 유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해 청구한 준항고가 이날 기각됨에 따라 이를 뒤인 24일 대법원에 재항고를 청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전과 달리 ‘구속 전 재판’처럼 진행되는 등 수사 상황이 변화된 점을 중심으로 재항고 청구 이유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이 은행의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정문수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 전 보좌관은 당초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다 뒤늦게 매각에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정 전 보좌관을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측의 로비가 있었는지, 론스타측 법률자문사인 김앤장 고문을 지낸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가 은행 매각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외환은행 할값 매각을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이번 주에 재청구하기 위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한국 남녀 불평등 ‘심각’

‘성격차’ 지수 92위...튀니지·UAE 와 비슷

한국의 남녀 불평등 상황, 이른바 ‘성(性) 격차’ 수준은 세계 92위로 아프리카의 튀니지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과 함께 여성인권이 매우 낙후한 것으로 평가됐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미국 하버드대학과 영국 런던대학 연구진과 공동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전세계 115개국을 상대로 교육과 보건, 고용, 정치 등 4개 부문에서 남녀 불평등 상황을 수량화 해 ‘성 격차(Gender Gap) 지수’를 산출한 결과와 평가를 22일 보고서로 펴냈다.

한국은 4개 부문 평점을 합산해 매긴 전체순위에서 92위로 튀니지, 방글라데시, 요르단, UAE 같은 나라들과 함께 최하위권에 속했다. 나라별로는 스웨덴이 1위를 차지했고, 노르웨이와 핀란드, 아이슬란드, 독일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6위로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10위권에 들었고, 미국은 22위에 머물렀다. 예멘은 꼴찌였다. /연합뉴스



Man-Ning Park Hotel

한가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 안양연시모임
- 농장지
- 상견례
- 고척면
- 각종 세미나나산악인모임장

12인승 차량모임

매일밤 8시부터 쏠! 쏠! 쏠! 애들은가라!!

최성수

오늘출연

방실이

11월 29, 30일

12월 7, 8일

설운도

부강천국 100%

광주 상무 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앞)